

# 京畿教育史

1992 ~ 2001

(上卷)



京畿道教育廳



## 경기교육 연혁

- 1964. 01.01 교육법 개정, 경기도교육위원회 발족
- 1964. 01.04 경기도교육위원회 개청(서울 종로구 세종로 71 경기도청 후정 별관 2층)
- 1964. 02.06 초대 홍낙선 교육감 취임
- 1968. 04.20 청사이전(서울 중구 을지로 6가 18의 131)
- 1969. 02.04 제2대 홍낙선 교육감 취임
- 1969. 12.29 청사이전(경기도 수원시 조원동 495번지)
- 1972. 02.04 제3대 신능순 교육감 취임
- 1972. 12.30 직제개편(부교육감, 2국 7과)
- 1976. 02.04 제4대 신능순 교육감 취임
- 1979. 06.25 직제개편(부교육감, 2국 1담당관 8과 27계, 비상계획담당관, 2실)
- 1979. 07.14 별관 청사 신축 1층, 지하층
- 1980. 02.11 제5대 이준경 교육감 취임
- 1981. 07.01 인천직할시 교육위원회 분리(454교)
- 1981. 11.09 직제개편(2국 1담당관 8과), 부교육감제 폐지
- 1983. 02.28 제6대 황철수 교육감 취임
- 1984. 05.25 직제개편(2국 1담당관 8과), 과학기술과 신설
- 1987. 02.09 제7대 박윤섭 교육감 취임
- 1988. 01.01 교육연구원 이전(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07-1번지)
- 1989. 05.06 제8대 한 환 교육감 취임
- 1991. 03.26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시·도단위 지방교육자치제 실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위원회 기관 분리
- 1993. 01.30 직제개편(1실 3국 4담당관 10과)  
신설: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 학교보건과
- 1993. 05.02 신축강당 준공(건축면적→1,090.6㎡, 강당객석→942석)
- 1993. 05.06 제9대 한 환 교육감 취임(초대 민선 교육감)
- 1997. 05.06 제10대 조성운 교육감 취임(제2대 민선 교육감)
- 2001. 05.06 제11대 조성운 교육감 취임(제3대 민선 교육감)
- 2002. 04.20 제12대 윤옥기 교육감 취임(제4대 민선 교육감)





경기도교육감  
윤 옥 기

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京畿教育史』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교육청은 경기교육을 통시적·공시적으로 재조명하는 목적에서 10년 주기로 「역사서」를 엮어내는 작업을 해 왔습니다. 1976년에 『京畿教育史』 제1집(1960~1974), 1983년에 제2집(1975~1982) 그리고 1991년에 제3집(1983~1991년)을 발간하였고, 이번에 다시 『京畿教育史』 제4집(1992~2001)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지정학적으로나 사회·문화·교육에서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중심에 서 왔습니다. 양적인 면만 보더라도 서울특별시의 확장과 인천광역시의 승격으로 이들 대도시의 인접 지역이 많이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학교수의 17.4%, 학생수 15%, 교원수 16.2%로 경기도는 교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중심 위치에서 경기교육은 1991년부터 1996년까지 '미래를 선도할 능력 있는 한국인 육성'을, 1997년부터 2001년까지는 '21세기를 주도할 창의력 있는 한국인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10년 간 경기교육 시책의 큰 틀을 민주 시민교육, 기초교육, 과학·실업교육, 교직의 자율성과 책무성, 교육환경·여건의 개선 등에 역점을 두어 경기교육 발전에 온 힘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기를 여는 대망의 2000년을 맞아 경기교육가족 모두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배우는 즐거움으로 활기찬 학교', '가르치는 보람과 긍지가 충만한 교직 사회', '창의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육환경'을 이루어 푸르게 생동하는 경기교육의 풍토를 조성하고자 '늘 푸른 경기교육'을 캐치프레이즈

## “꿈, 긍지, 믿음이 충만한 으뜸 경기교육의 실현”

역사는 과거의 사실을 말하지만, 그 사실들이 지닌 참된 의미는 미래의 관점에서 재발견되고 재해석됩니다. 미래지향적 입장에서 과거를 돌아켜 봄으로써 역사는 비로소 올바른 의미를 지니게 되고, 현재의 우리에게 미래를 밝혀 주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간의 교육시책 추진과 교육현장의 실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성과와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경기교육의 현실을 확인하고 미래의 다양한 변화를 예측하여, 경기교육의 알찬 미래를 모색하는

로 설정하여 21세기를 대비한 교육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과 함께 새롭게 변화하는 21세기에 맞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새 시대의 주역인 우리 학생들이 특기와 적성을 최대한 계발하여 자기 분야에서 으뜸가는 실력인이 되고, 도덕성을 함양하고 창의성을 계발하여 개인적으로는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이 되며, 국가적으로는 민족 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랑스런 한국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으뜸 경기교육」의 기치 아래, “21세기를 주도할 자랑스런 한국인 육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여 “학생에게 밝은 「꿈」을, 교사에게 「금지」를, 부모에게 「믿음」을”의 기본 틀을 가지고 도전과 창조 의 으뜸 경기교육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동안 추진해온 교육 시책과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낸 성과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여겨지며, 바로 여기에 『京畿教育史』 발간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년간의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선별·정리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충분하고 미흡한 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 책이 앞으로 경기교육은 물론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 동안 자료의 빈곤과 시간의 제약을 무릅쓰고 편집위원회를 조직하고 집필진을 구성하여 자료를 수집·분석·정리하여 경기교육사를 편찬해 주신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김을영 원장님을 비롯한 자문위원, 편찬위원, 육고를 집필해 주신 집필위원, 그리고 편집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 2월 10일

경기도교육감 **윤 욱 기**